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83
----------	------

발의연월일 : 2025. 3. 11.

발 의 자 : 박희승 · 추미애 · 서영교
김원이 · 박성준 · 박상혁
안호영 · 김태년 · 김정호
소병훈 · 김동아 · 이개호
김준혁 · 남인순 · 박균택
어기구 · 한정애 · 김남희
김승원 · 이춘석 · 한민수
윤준병 · 김한규 · 임미애
문진석 · 위성곤 · 민병덕
전진숙 · 정준호 · 황명선
이원택 · 박용갑 · 김윤덕
김영호 · 박민규 · 김기표
김종민 · 오세희 · 오기형
정일영 · 박지원 · 박해철
김 윤 · 임호선 · 정진욱
손명수 · 장종태 · 이용선
이재강 · 이건태 · 위성락
신정훈 의원(5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

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질서유지 및”을 “질서유지,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및”으로,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내에 있는 사람이”를 “내외에서”로, “경우에는 이를”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보안관리대의”를 “법원경비대의”로, “내의”를 “내외의”로, “있다”를 “있으며, 출입문 등 법원 청사 외부의 위해로부터 출입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관 또는 법원직원을 협박하는 경우

⑤ 국가는 법원경비대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받는다”를 “받

으며, 제2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로 한다.

②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법원경비대) ① ----- ----- <u>질서유지, 법관과 법원</u> <u>직원의 신변보호 및</u> ----- ----- <u>법원경비대</u> ----- ----- -----.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법원경비대----- ----- <u>내외에서</u> ----- ----- ----- <u>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관 또는 법원직원을 협박하는 경우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
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
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생략)

<신설>

<신설>

③ 법원경비대의-----

-----내외의-----

-----있으며,

출입문 등 법원 청사 외부의
위해로부터 출입자를 적극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법원경비대가 그 업
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
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
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p>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p>	<p>④ ----- ----- ----- -----받으며, 제2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p>
--	--